



기술표준원 news plus+

승강기 제대로 타기 안전캠페인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이주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주관한“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이월22일(木) 10:30에서울역 대합실에서발대식을갖고 12:00까지 서울역광장에서거리캠페인을실시하였다.

이날안전캠페인에는최갑홍기술표준원장, 박영숙전국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어머니회원, 유대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송자현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홍종희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승강기관련업체등 30여명이참가한가운데새로개선된승강기용주의사항스티커를서울역에설치된승강기

에시범부착하고, 승강기제대로타기홍보전단을배포하였다. 이와함께, 서울역광장에서는이동차량을이용한“승강기제대로타기”안전홍보동영상도상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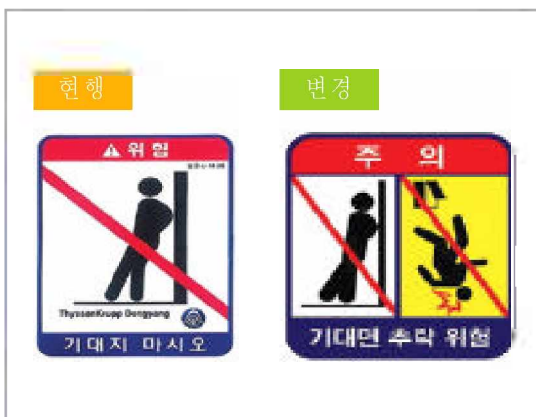
※ 개선된 스티커의 디자인과 문구는 추락하는 그림과 기존“ 기대지 마시오”를“ 기대면 추락위험”으로 바꾸고, 부착위치와 크기도 현재보다 낮은 170~180cm 위치에 부착하며 크기도 확대(80×100mm→100×110mm)하여 금년 3월 중 승객용 승강기에 부착완료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이번 캠페인이최근승강기문에어른 두 명이 함께 부딪치거나전동스쿠터기부딪치는등 무리한힘이가해겨문의 이탈로추락한사고가잇따르고, 2002년부터지난해까지의승강기원인별 사고



율을 보면 이용자과실 1.7%, 현장관리자의 관리부실이 18.0%로 전체 사고의 70% 가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이용자과실 예방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 검사기관, 시민단체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금년중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350여 초등학교 50만명 어린이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과명예검사원은 2천여 유치원 및 저학력 초등학교 어린이 70만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승강기 이용방법과 잘못된 이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을 포함한 각 지방에서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시민단체와 함께 정례 승강기 안전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 개선

물류체계의 개선과 물류흐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04년 7월부터 시행한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가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대폭 개선된다.

기술표준원은 지게차, 컨테이너 등 물류설비에 대해 표준과렛(1100mm×1100mm)와의 정합성(整合性) 위주로 평가하는 현행의 물류설비 품목별 인증을 화물 이동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개편하고, 현행의 품목별 인증에 대한 인증평가는 민간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증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인증 여부만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새로이 추진되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은 화물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등에 있어서 모든 물류설비가 표준화되어 유닛로드 시스템(일관수송체계)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물류경영시스템 체계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함으로써 전체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단순한 품목별 인증보다는 화물이 이동되는 각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과정을 3~5단계씩 묶어 모듈화하여 인증하는 일종의 시스템 인증이다.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건교부, 해수부 등과 함께 추진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 상호 연계하여 유닛로드 시스템화 촉진함으로써 물류설비 및 기기의 표준화, 자동화 및 공동화 실현을 통한 기업 물류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표준원은 3월 중 물류경영시스템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오는 4월부터 대기업 또는 물류전문기업에 상으로 시범 인증을 실시하고 문 제점을 보완하여 늦어도 10월부터는 본인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물류경영시스템인증」범위를물류서비스 인증까지확대하여물류의흐름이획기적으로개선될 수 있도록유통물류서비스를혁신함으로써우리산업 전반의경쟁력을제고하는데기여하도록할 계획이다.

반도체 조명(LED) 국가표준(KS) 제정

최고90%까지전기에너지절감이가능하체세대조명으로각광받는LED(Light Emitting Diode)조명의개발및 보급사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2011년부터3년간15종의KS 규격제정이추진된다. 기술표준원은기업의LED조명 기술개발을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시험평가방법과조명제품의품질 기준을표준화하기위한LED조명 표준화3개년 계획을수립하고금년부터표준화를본격추진한다. * 산업자원부는 2015년까지 조명시장의 30% 이상을 LED조명으로 대체하기 위한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를 추진중

LED조명은에너지절감효과이외에도수명높고수온을쓰지않아친환경성제품으로인식되고있어, 우리나라뿐만아니라중국, 일본등 각국의개발경쟁이 치열하기때문에수명등 내구성, 안전성, 인체적합성 등에관한평가방법을개발하여표준화함으로써우리나라가기술개발경쟁에서비교우위에서계 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국내 개발조명제품에대한품질기준을KS규격으로제정함으로써중국등에서저가의품질이낮은 제품이수입되는것을사전에차단하겠다는방침이다.

‘07년에는건물의비상조명등, LED 전광판, 열 축

성, 안전성요구사항, 성능시험방법등 8종을 제정하고, '08년에는자동차조명용LED 성능시험방법등 4종, '09년에는LED 가로등등 3종을포함하여총 15종의KS 규격이제정된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원)계기관과의각종인프라등을네트워크화하기위한 LED조명 표준화컨소시엄을확대개편하고이를기반으로KS 규격을제정함과동시에이들규격을전략적으로IEC 국제표준으로제안함으로써우리국의조명제품이세계시장을선점할수



농기계 부품 ISO 국제규격으로 대체

기술표준원에농기계수리불편해소를위하여시행하고있는『통일· 단순화명령제도』의 운영실태조사 결과, 국내제조업체에적용하는명령대상부품의호환성은상당부분확보되었으나, 매년증가하고있는수입농기계는고가이면서도제 때 부품을공급받지 못하는등농민의애로점은많은것으로밝혀졌다. 이에따라우선트랙터부품관련KS규격13종중에서9종의부품을ISO규격과일치화함으로써국내산과수입농기계부품의호환성을확보하여농민의애로를해

소하고국산농기계외수출을촉진할계획이다.

통일·단순화명령대상인47개 농기계부품에대하여 실시한이번운영실태조사에서2개 품목(89%)은 잘 이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명령을이행하지않은4개 업체를농림부에통보하여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이 심사에서감점을받도록 조치하였으며, 트랙터용이랑쟁기보습부품에대해서는 제조업체들과새로운부품및 기술개발이활발한 품목으로서기술개발을촉진하는취지에서명령품목 지정을해제하기로하였다.

앞으로기술표준원은, 신모델·발등 기술개발을저해할수 있는품목은통일·단순화명령품목외정을 해제하고국내수요가많은 품목은사용자편의를위하여신규지정하는등 그 필요성과효과등을면밀히 검토하여신속적으로운영할계획이며, 수입농기계 부품이통일·단순화대상국산부품과유사한경우에는 통일·단순화명령제도를따르도록수입업체에 적극권유할예정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원장국농업인이참석하는“2007한국농기계엑스포(기간4.11~4.13장소:전북익산)에통일·단순화제도등의정책홍보를겸하여KS제품인

고휘도반사안전표지판을 무료로배포, 농기계안전사고를사전에방하기위한조치도병행한다.

이번에공급되는KS규격제품(붙임참조)인“반사안전표지판은지자체에서주로공급되는 델리네이터의 반사유효면적보다0%가 넓어 원거리에서도식별이 용이하여지방도에서와안전사고예방에기여할수 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계량기 KS마크 인증 추진

앞으로수도미터, 저울, 전력량계 국민생활과밀접

하고상거래에사용되는계량기의품질향상을위해 소비자가선호하는KS표시(㉞) 인증이추진된다.

지금까지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법정계량기로지정된18개 품목에대하여계량기를제작(외국에서제작하여우리나라에수출하는자 포함) 또는수입하는 자는형식승인을받아제작·판매하고있으나, 형식승인은단순히제품만시험하여승인하므로계량기의 품질향상을기대하기어려웠다.

국내370개 법정계량기계작업체중 일부업체를제외하고는대부분영세업체로계량기의품질저하와업체인력이우려되며, 수요자품질이좋은계량기를구매하기위해인력, 품질관리시스템, 제조및 검사설비를갖추고품질관리하는KS표시인증제품을선호함에따라KS표시인증제도를추진하게되었다. 현재계량기KS표시인증업체는전체계량기생산업체중 21개 업체(6%)만 인증을득하여저조한실정이다.

이에따라기술표준원원장KS표시인증을받지않은업체를대상으로지역별순회설명회를개최하여, KS표시인증을받을경우형식승인면제및 공공기관우선구매등의혜택이있음을홍보하여업체로하여금KS표시인증을받도록적극추진할계획이다.

계량기생산업체가형식승인위주에서KS표시인증으로전환시 영세한계량기생산업체의난립을방지할수 있고, 품질향상으로안정적인품질을기대할수 있을뿐만아니라, 계량기수요자의요구에도부응할

화학물질 안전표지 바뀐다

산업자원부는2008년국내시행예정인GHS(화학물질의분류및 표지에관한세계조화시스템)를내에정

확시하기위해서포스터를제작 보급하고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개발한다.

GHS란 27개의 화학물질군의위험성을9개의 그림문자로 표시하는새로운안전표지로서2003년 UN에서 GHS 지침서를 만들어보급하면서모든국가에서공통으로사용하도록권장한바있다.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우리나라에서GHS 국내 정착을위하여2004년부터 7개부처가정부합동GHS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대응하고있으며, 06.12월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관) 개정을시작으로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도관계법령개정작업을서두르고있으나, 정착기업들은GHS를 따르지않을경우외국과의수출입이금지되는강제규제인데도, 아직까지GHS가 무엇인지조차모르는기업이있을정도여서홍보및 교육이절실한상황이다.

이에따라기술표준원(06년12월에제정된KS 규격(KS M 1069 "GHS를 기초로한 화학물질의표지")을 바탕으로GHS 포스터를관련업계에배포하는등 홍보를강화하고, 금년중으로GHS 저변확대를위하여전문기양성프로그램을개발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 분야에서선진국으로도약할수 있는기반을마련할방침이다.

GHS 교육용프로그램에는화학물질분류 및 표지방법, 데이터습득 및 분석방법, 제품라벨링방법등 화학물질안전관리에필요한모든교육과정을담을 예정이다.

앞으로도산업자원부는GHS가 단순히화학물질을생산 관리하는기업뿐만아니라유통(철도, 선박, 항공 저장등 다양한분야에 적용 되고국민의안전과도직

결된다는점을감안하여, 관계부처와협력하여새로이 바뀌는화학물질안전표지를모든기업과국민이 쉽게알 수 있도록전략적인홍보를강화하는등 세계 7위의화학산업강국에걸맞은화학물질안전관리시스템의조기정착을위해노력할방침이다.

UN 지침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

불꽃	원위의 불꽃	폭탄의 폭발
		
부식성	가스실린더	해골과 X자형 뼈
		
감탄부호	환경	건강 유해성
		

| 기술표준2007. 4